

국악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권 덕 원*

1990년대 이후 학교에서의 국악 교육 분야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양성, 교사연수, 교육과정, 교과서, 국악기 및 시설, 국악동요, 그리고 국악교육 연구 지원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제어: 교사양성, 교사연수, 교육과정, 교과서, 국악동요, 국악교육연구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현황과 인식
2. 개선을 위한 제언

III. 결 론

* 경인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I. 서 론

국악 교육은 국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국악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국악 애호가들이 생기고, 국악을 사랑하는 일반 애호가들이 많아져야 국악을 향유하고 소비하는 계층이 두터워진다. 이들 일반 애호가들은 국악 연주회의 관객들이 되며, 국악 음반의 구입자들이 되고, 국악 저서들의 독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국악 방송의 애청자들이 된다. 이 국악 애호가들이 없고서는 국악 무대도 없으며, 국악 연주가들이 설 자리도 없고, 결국 국악문화가 살아남을 존재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국악 연주가들을 길러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이 없고서는 아예 국악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방 이후 국악인들은 대학에 국악과를 설립하여 국악 전문가들(연주가, 작곡가, 이론가)을 길러 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전문가들은 국악 창작과 연주와 이론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으로 전통음악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고,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이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더욱 깊이 박히고, 더욱 넓게 퍼져 나가는 행진이 그토록 더딘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를 ‘국악 교육의 미흡’에 두고자 한다.

무대는 마련되었고, 잔치(국악연주회)는 차려져 있는데, 그 무대를 찾아와서 국악 잔치에 참여하는 관객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잔치에 참여할 관객들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곧 ‘국악 교육’이다. 물론 대학의 국악과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교육도 국악 교육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교육은 무대 위의 연주를 준비하는 교육이다. 무대 아래에서 설레는 가슴으로 무대 위의 좋은 음악을 듣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준비하는 국악 교육은 대학의 국악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교의 국악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토록 부족하고 답답해 보이는 일반 교실의 국악 교육이 바로 그 관객들을 준비하는 중요한 국

악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악 교육의 시작은 전문가들에게 달려 있다. 그 전문가들이 눈높이를 낮추어 아직 여리고 부족한 일반 교실의 국악 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자기의 문제로 깊이 인식하면서부터 비로소 올바르게 시작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국악 교육을 전제로 하여, 교사 양성, 교사 연수, 교육과정, 교과서, 국악 시설, 국악 동요, 그리고 연구 지원 등의 관점에서 현재 정책을 진단하고, 그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Ⅱ. 본 론

1. 현황과 인식

(1) 교사 양성

국악 교육은 준비된 교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교사가 국악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식견과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학교의 국악 교육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반면 교사들이 국악 교육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할 때 교실의 국악 교육은 항상 미흡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양성되는 과정에서부터 국악 교육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중등학교의 음악 교사들은 음악대학 또는 음악교육과를 통하여 배출된다. 음악대학의 경우는 흔히 음악 교사보다는 연주가를 목표로 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따라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연주가의 길을 걷는 사람의 경우는 어려움이 없지만, 음악 교사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긴다.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을 잘 해야 함은 물론, 교육학적 지식과 경험도 반드시 필요한데, 음악대학을 다니는 과정에 음악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양 음악을 전공한 학생은 국악을 공부해야 하고, 국악을 전공한 학생은 서양음악을 공부해야 중·고등학교에서 음악 과목을 무난하게 가르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대학을 졸업한 음악 교사들은 그 두 분야를 모두 충분하게 배우지 못하고 학생들 앞에 서게 된다.

중등학교에서 국악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 음악대학의 교육에서 여전히 음악 교사보다는 음악 연주를 길러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음악대학에서 앞으로 ‘음악 교사’를 길러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면, 음악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국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에 ‘국악이론’ ‘국악실기’ ‘국악지도법’ 등의 강좌가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초등 교사를 길러 내는 교육대학에서는 국악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국악 교육에 관련된 과목이 미흡하고, 국악을 담당하는 교수진의 수도 부족하긴 하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의 <표 1>은 일부 교육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음악교육과 심화 교육과정 속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과목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 주고 있다(석문주 외, 2004). 심화 과목 외에도 교육대학에서는 교양과정과 공통과정에서 국악을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 연구에서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석문주 외, 2004; 변미혜, 2005).

심화 과목의 분석과 일반 공통 과정의 비교 분석 자료를 통하여 몇 가지 결론적인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로, 전체적으로 국악 관련 과목의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모든 학생들이 듣게 되는 전공과정에 국악 과목이 2학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악에 대하여 올바르게 준비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국악 교육의 내용 중에서 매우 기본적인 것만 다룬다고 해도 이론, 단소, 장구, 민요, 교육론 등을 교육하려면 적어도 5-6학점은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표 1> 교육대학 음악과 심화과목 중 국악관련 과목 비교

()안은 학점수

교대명 (가나다순)	심화과목 (필수)	심화과목 (선택)
경인교대	한국음악이론(2) 한국음악교육연구(2)	국악기악(2) 국악가창(2)
공주교대	국악I(1) 국악II(1) 국악III(1)	-
광주교대	국악이론(3) 국악실기(2)	-
대구교대	국악장단지도법(2) 국악교수법(3)	-
부산교대	국악실기I(2) 국악실기II(2) 국악실기III(1)	-
서울교대	국악지도법(2)	국악실기(2)
전주교대	국악지도법(3)	국악개론(3)
제주교대	초등국악교육실기(2)	-
진주교대	국악실기교육I(3) 국악실기교육II(3)	-
청주교대	국악실기(2)	-
춘천교대	국악지도법(3)	국악실기(2)

둘째로,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국악 내용 사이에 어떤 통일성이나 체계성이 없어 보인다. 물론 대학 교육의 내용을 대학 간에 어떤 통일성을 꼭 추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교육대학의 국악 교육 내용이 매우 기본적인 것임을 고려해 볼 때, 대학 간에 어느 정도의 통일성과 체계성은 필요하리라고 본다.

셋째로, 대학들 사이에 국악 과목 비중의 편차가 심하다. 국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의 경우 전공과정과 심화과정의 필수 과목의 합이 10학점임에 비하여 낮은 대학은 2.5학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 과목이 미흡한 대학들에서는 국악 과목과 그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교사 연수

교육대학교, 음악대학, 사범대학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교단에 서 있는 교사들이 국악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각종 국악 연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동안 국립국악원을 비롯하여 각 시·도의 공립 국악 단체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하여 꾸준히 국악 연수가 진행되어 왔다. 많은 교사들이 국악 연수를 통하여 국악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국악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실기와 교수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 연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권덕원(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악연수를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한 교사가 47.5%에 이르며, 국악연수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81.8%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현재 강원도의 초등 교원의 수는 모두 5819명이다(교육개발원, 2006). 40명을 한 반으로 국악연수를 1년에 1회 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강원도의 모든 교사가 국악연수를 받으려면 145년이 필요하고, 1년에 80명을 대상으로 국악연수를 한다고 할 경우에도 72년이 필요하게 된다. 교사의 근무 연한을 평균적으로 길게 잡아서 약 35년이라고 볼 때, 현행의 속도(1년에 40명 대상으로 1회)로 국악연수를 한다면 교사의 76%는 결국 교직 근무 기간 중 한 번도 국악연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교사들이 대학에서도 제대로 국악을 배우지 못하고, 현직에 와서도 대부분이 국악연수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돌아 볼 때, 학교에서 국악교육이 미흡한 현실은 당연한 귀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

(3) 교육과정

해방 이후 학교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은 모두 7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1955년, 1963년, 1973년, 1981년, 1987년, 1992년, 그리고 1997년에 7차 개정이 있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은 가장 치열한 관심을 받았다. 어떤 과목에 몇 시간이 배당되는가 하는 문제여서 각 과목의 전문가들은 해당 과목 시간의 증감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음악 과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은 매우 저조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음악 과목이 ‘즐거운 생활’이라는 과목에 통합되어 음악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도 그것을 문제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고, 2003년 4월에 교육부가 ‘예체능 과목의 점수-석차 제도를 폐지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는 언론의 보도를 접하고 나서도 음악계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에서 음악 교육이 쇠퇴하면 그 결과는 너무 분명하다. 음악 시간이 줄면 음악 교사의 수가 줄고, 음악 시간이 줄면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도 하향된다(권덕원, 2002). 음악대학 지원자가 줄게 될 것이며, 그만큼 유능한 음악가들이 줄게 되고, 한국의 음악계는 날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음악 시간이 줄어드는데, 국악 교육의 시간이 증가할 수 있겠는가? 음악 시간을 줄이고, 음악의 비중을 낮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국악의 시간도 줄이고 국악의 비중도 낮추고 싶어 하는 사람들임을 상기해야 한다. 그들은 음악이건, 미술이건, 국악이건, 예술에 관련된 내용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학교의 교육에서 주변의 위치로 몰아내고 싶고,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교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동안 음악 교과 내에서 국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많은 국악 전문가들이 국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음악 전체의 역할과 비중을 높이는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이다. 국악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음악의 비중이 낮아진다면 국악의 비중도 같이 낮아지는 결과가 오기 때문이다. 국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을 해 왔

던 우리들이 이제는 음악의 비중, 예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눈을 뜨고, 다른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1주일의 수업 시간 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 제한된 시간 속에 음악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며, 국악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치열한 논리적 대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 ‘다른 것은 우리 알 바 아니니까 오로지 국악만 늘려 달라’는 식의 주장은 교육과정의 역학적 구조에서 더 이상 수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국악 뿐 아니라, 예술교육에 대하여, 교육에 대하여, 그리고 교육과정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국악 분야 외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교과서

교과서 내용에 포함된 국악의 비중을 통하여 국악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교과서 외에도 국악 교육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수 자료가 곧 교과서라는 점에서 교과서 속의 국악의 비중은 국악 교육의 현황과 그 변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의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는 교육과정과 함께 개정되었다. 즉 7번의 개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교과서가 개정되는 사이 그 교과서 내용 속의 국악 내용도 많이 변화되었다. 국악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다음 교과서 개정 작업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음악 교과서 속의 가창곡들은 몇 가지의 양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의 경우는 서양의 노래를 그대로 받아서 가사만 번역 또는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다. 둘째의 경우는 서양의 음악 어법에 기초하여 한국의 작곡가들이 창작하는 노래 양식이다. 셋째는 전통적인 노래를 그대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가사만 약간 바꾸는 경우이다. 넷째는 전통적인 음악 어법에 기초하여 한국 작곡가들이 창작하는 노래 양식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해방 이후의 가창곡들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양식을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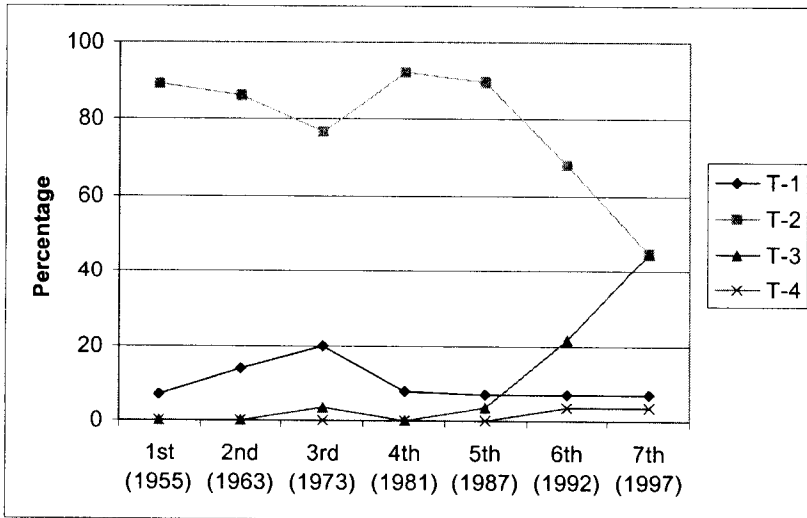
T-1: 서양의 작곡가들이 작곡한 노래 또는 서양의 전통적인 노래들

T-2: 서양 어법에 기초하여 한국인이 작곡한 노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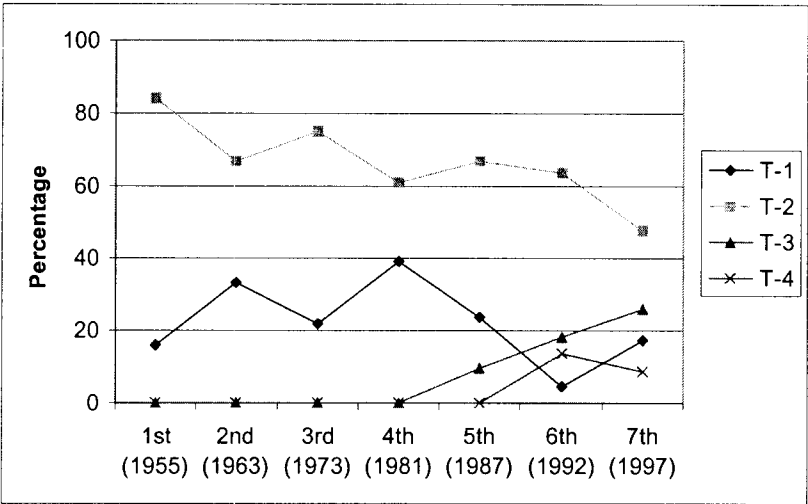
T-3: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들

T-4: 한국의 전통적인 어법에 기초하여 한국인이 작곡한 노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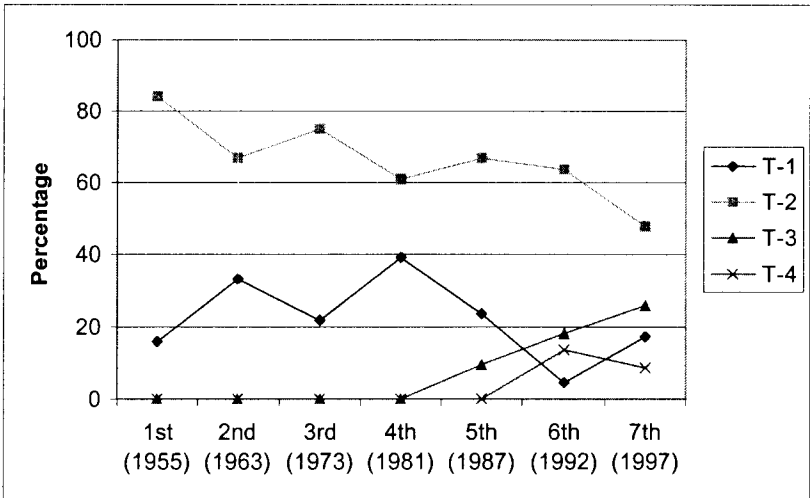
다음의 그래프들은 해방 이후 초등학교의 음악 교과서의 가창곡의 음악적 양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보여 주며, 국악 가창곡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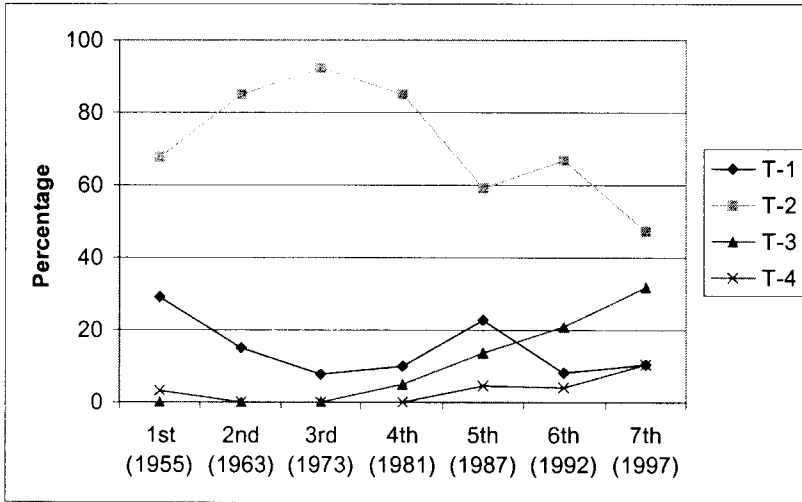
<그래프 1> 초등학교 1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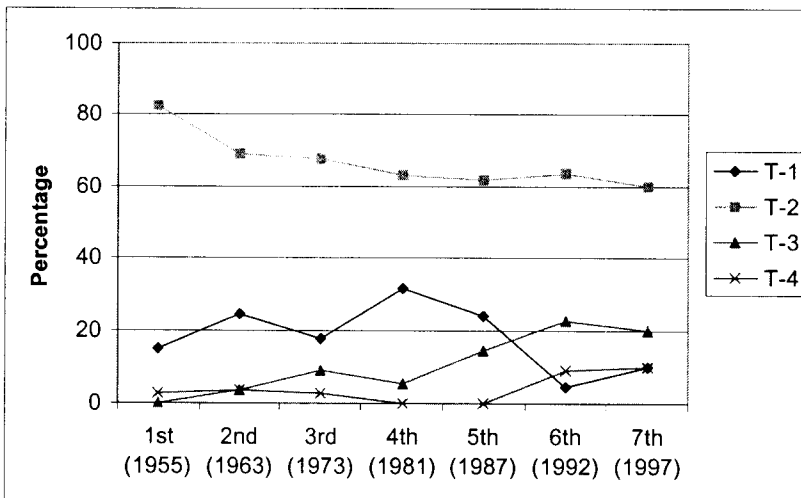
<그래프 2> 초등학교 2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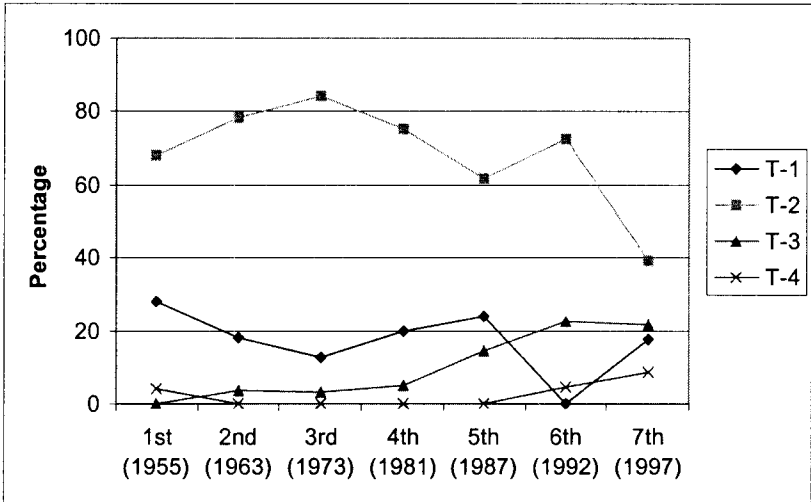
<그래프 3> 초등학교 3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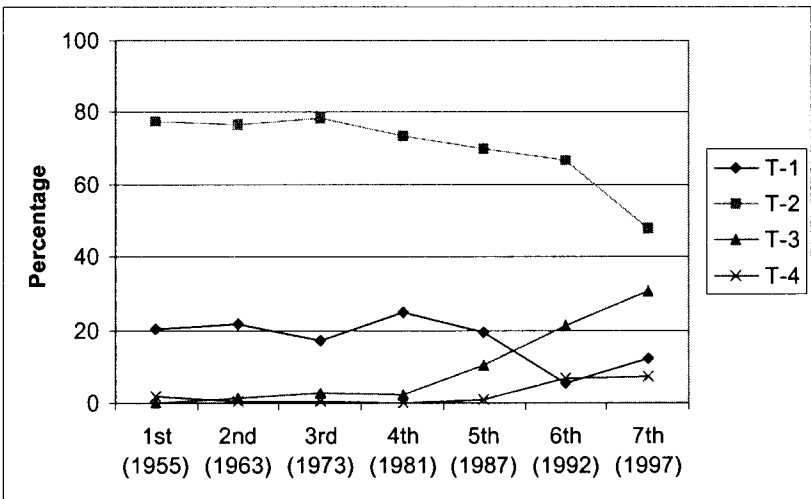
<그래프 4> 초등학교 4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그래프 5> 초등학교 5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그래프 6> 초등학교 6학년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그래프 7>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 국악 비중의 변천

위의 <그래프 7>은 6개 학년의 모든 교과서 가창곡들의 음악적 양식의 변천을 보여 준다. 순수한 서양 노래(T-1)는 약 20%에서 시작하여 약간의 변천이 있었지만,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6차와 7차의 교과서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서양 어법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이 작곡한 노래(T-2)는 약 78%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감소하다가 7차에서 현격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의 전통적인 노래(T-3)는 4차까지 거의 제로 수준으로 있다가 5차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6차(21.3%)와 7차(30.7%)에서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전통적인 어법에 기초하여 한국인들이 작곡한 노래(T-4)는 5차까지 거의 제로 수준에 있다가 6차(6.7%)와 7차(7.1%)에서 괄목한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해방 이후 약 50년 동안 전반적으로 서양 노래 또는 서양 어법에 기초한 노래들은 크게 감소하였고, 반대로 전통적인 노래 또는 전통적인 어법에 기초한 노래들은 크게 증가하였다(Kwon, 2002).

(5) 국악기 및 시설

국악 교육에서 국악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형편은 국악기에 관한 한 매우 열악하다. 한 학급의 학생들이 장구 장단을 배우려고 하면 최소한 40-50대의 장구가 필요한데, 그 정도의 장구를 갖추지 못한 학교가 대부분이고, 갖춘 학교라 할지라도 그 장구의 제품의 수준은 대개 낮은 편이다. 또한 장구가 있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쓸 만한 장구들을 갖춘 학교들이 매우 적다. 국악 지도에 관심이 있는 교사가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국악기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에 국악기가 있어도 관리와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악기의 품질이 낮으면 좋은 소리가 날 리가 없고, 좋은 소리가 나지 않는 국악기로 국악 교육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은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한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좋은 국악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흔히 연주용 국악기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을 당연히 하면서도, 교육용 국악기는 가

능한 한 짝 것으로 구입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악기에 관한 한 연주용과 교육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악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국악기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국악실을 갖춘 학교가 매우 적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교실에서 국악 교육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옆 반에서 조용한 과목의 수업을 하고 있는데, 단소 제주, 노래 부르기, 타악기 연주하기 등의 음량이 큰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편안하게 국악 수업을 할 수 있는 특별실(국악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국악 동요 창작

국립국악원에서 창작 국악 동요를 위촉 또는 공모하여 발표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었다. 그 이후로 매년 창작 동요를 발표한 결과 2002년 제16회 국악동요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228곡을 발표하였다(국립국악원, 2000). 국악 동요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적임에 틀림이 없다. 그 기간동안 발표된 동요들 중에서 상당수는 교과서에 게재되었고, 또한 방송, 음반 및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동요들이 보급되었다. 이제는 창작 국악 동요가 우리나라의 음악에서 하나의 중요한 장르로 자리 잡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미 많은 작곡가들이 국악 동요 창작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좋은 작품들도 많이 만들어졌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작곡가들이 이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좋은 작품을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음악 교육 분야에서도 창작 국악 동요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창작 국악 동요에서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로, 전통적인 어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5음 음계로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곧 국악 동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어법이 물론 5음 음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율의 진행 패턴이나 장단을 사용하는 방법, 리듬을 만드는 방법 등에 있어서 한국 전통 음악 특유의 속성이 있다. 창작 국악 동요들 중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어법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

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순한 5음 음계에 기초한 노래들이 있다. 물론 창작은 자유이고, 어느 누구도 ‘국악 동요의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악 동요 역시 한국 전통 음악의 역사적 맥락 위에 토대를 두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국악 동요의 창작 작업에서 전통적인 어법은 더욱 중시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많은 동요들에서 순수한 동요의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공모제용”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다. 짧은 동요 안에서 장단이 자주 바뀐다든지, 곡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점, 필요 이상의 가창 테크닉이 요구된다는 점 등은 바로 그러한 공모제용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대 위에서 불러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동요들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성격의 노래들이 국악 동요의 주류를 이룬다면 이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닐 것이다(국립국악원, 2001). 셋째로, 국악 동요에 대한 작곡 전문가들의 무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악 동요 작곡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교사 출신의 작곡가들이다. 이들은 대학을 다닐 때 국악 작곡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일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악 동요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훌륭한 동요 작곡가들이 된 사람들이다. 국악계는 이러한 교사 출신의 작곡가들을 최대한 지원하여 그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좋은 국악 동요를 창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룹은 곧 국악 작곡 전문가들이다. 대개 이들은 성인들을 위한 예술적인 곡들을 창작하는 일에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국악 작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그들이 “국악 동요” 작곡에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좋은 동요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7) 국악 교육 연구 지원

국악 교육에 관한 연구 활동은 바람직한 국악 교육을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국악 교육 분야를 하나의 학문적인 분야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국악 교육의 철학을 확립하고,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며, 교육 방법을 창의적으로 탐색하는 등의 연구 활동은

보다 발전적인 국악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동안 국악 교육에 관한 연구 활동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개인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논문을 쓰거나, 자료집을 개발하거나, 또는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하여 석사 논문으로 써서 발표하곤 하였다. 특히 국악 교육 연구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한국국악교육학회”의 활동이었다. 1975년에 창립된 한국국악교육학회는 1976년에 “국악 교육” 창간호를 낸 이후 2002년까지 모두 20권의 논문집을 발간하였다.¹⁾ 그 논문집들을 통하여 많은 논문, 국악 교육사례 등이 발표되어 많은 국악 교육가와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어 왔다.

1999년부터는 국립국악원에서 “우수 국악 교육 연구 공모제”를 통하여 관심 있는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네 번의 공모제를 통하여 교수-학습 지도안 22편, 국악 교육 체험사례 8편, 그리고 국악 교육 연구논문 7편을 선정하여 자료집을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그 중의 일부는 실연을 통하여 발표되었다(국립국악원, 1999). 아직은 참여하는 교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차츰 많은 교사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를 통하여 국악 교육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국악 교육 연구 분야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많다. 첫째, ‘국악’과 ‘국악 교육’의 개념이 국악계 안에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국악은 ‘국악을 하는 행위’이고 국악 교육은 ‘국악을 가르치는 행위’이므로 그 두 개념은 매우 뚜렷이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국악계 안에서는 국악 교육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국악을 잘 하면 국악 교육도 저절로 잘 하게 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그 결과로 국악 교육의 분야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악 교육의 학문 분야 체계화가 지연되고 있다. 둘째로, 국악 교육을 세분하면 ‘전문 국악 교육’과 ‘일반 국악 교육’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국악과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교육은 전문 국악 교육이며, 유치원

1) 1975년에 “한국국악 교육연구회”로 창립되었으며, 1977년에 그 명칭이 “한국국악 교육회”로 변경되었고, 1986년에 “한국국악교육학회”로 개명되었다.

및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국악 교육은 일반 국악 교육이다. 즉 전문 국악 교육은 국악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인 반면에, 일반 국악 교육은 국악 애호가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그 두 가지 국악 교육은 서로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의 과정이나 방법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문 국악 교육에 적합한 목표나 방법을 일반 국악 교육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려는 오류가 발생한다. 셋째로, 국악 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물들 속에서 연구 방법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연구의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합당한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이 일반적인 연구법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연구 방법에는 철학적 연구, 미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실험 연구, 통계 연구, 질적 연구 등 다양한 방법론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Phelps, Ferrara, & Goolsby, 1993). 연구에 있어서 ‘국악’은 특별한 영역이 아니며, 국악 연구 역시 일반적인 연구의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 연구의 원리를 따라 수행된 연구의 결과만이 학문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개선을 위한 제안

(1) 교사양성

첫째로, 음악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국악 관련 과목의 수와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대학의 교수 사회는 매우 자치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음악대학 또는 음악교육과의 교육과정에 국악 과목을 늘리는 문제는 철저하게 그 해당 대학 또는 학과의 소속 교수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음악대학이 서양 음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국악 과목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또한 교육대학의 음악교육과 역시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수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결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국악의 비중이 크게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새로운 경향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아직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양음악을 전공한 교수들과 국악을 전공한 교수들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사 양성 대학들에서 국악 과목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국악이론 및 감상, 국악실기, 국악 교육론 등이다. 현재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서는 대개 국악실기 과목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국악이론, 국악감상, 국악 교육론 등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각 대학에서는 자기 대학의 특성을 존중하되, 기본적인 국악 내용을 체계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로, 국악 전공 교수들이 음악대학 또는 음악교육과 안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대개의 경우 서양음악 전공 교수들과 국악 전공 교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교과목 협의 또는 교수 채용 협의 등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신경전이 일기도 한다. 서양음악 전공 교수들에게 국악의 중요성을 설득하여 교과목을 늘리고, 국악 전공 교수의 수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학 또는 학과 내의 모든 일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설득력 있는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교사연수

첫째로, 모든 교사들이 10년에 1회 이상 국악 연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성천, 1994). 현재 ‘과학과 연수’는 일정 기간을 주기로 하여 연수를 받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그 결과 초등교육의 경우 모든 교사들은 자기의 교직 생활 동안 적어도 몇 번은 자연과 연수를 받아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개의 교사들은 초등 교육에서 자연과 교육보다는 음악과 교육, 특히 국악 교육을 더 어려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교사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잘 안되고 있는 과목에 대한 연수를 우선시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자연과 교육은 교사들이 과히 어려워하는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교사들이 그보다 더 어려워하는 국악 연수는 더 우선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둘째로, 국악 연수의 내용을 질적·양적으로 더욱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시간의 연수로는 국악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하게 교육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그 시간을 120시간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또한 연수의 내용도 학교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악의 내용은 엄청나게 많고 다양하다. 그렇게 많은 내용을 교사들에게 다 교육시킬 수는 없다. 실제로 국악 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실제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연수가 되도록 연수기관들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연수에서 교사들은 학교의 국악 교육과 별로 상관이 없는 연수가 ‘국악’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셋째로, 국악 연수를 위한 전문 강사들을 배출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좋은 국악 연수를 하려는 강사들은 ‘국악’ 외에도 몇 가지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우선 아동들의 수준과 흥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학교의 교육 상황과 학교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민요의 예를 들어 보자. 대개의 민요 강사의 경우 자기 전문 분야가 있게 마련이다. 즉 남도 민요를 전공한 전문가들은 남도 민요 외에는 잘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남도 민요 뿐 아니라, 경기 민요, 동부 민요, 서도 민요, 제주도 민요 등 다양한 지역의 민요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국악 연수에서 좋은 민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공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요도 잘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악 연수에서 각 지역별 민요 전문가를 각각 초청할 형편은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악 연수에 적합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요를 두루 잘 부를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현재의 교과서에 어떤 민요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그 교과서 속의 민요를 다 지도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민요 교수법에 대해서도 깊은 식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악 연수를 위한 전문 강사들이란 곧 ‘국악교육자’들이다. 학교 국악 교육 뿐 아니라, 국악 연수에서 요구하는 강사는 자기 전공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학교 교육의 실정에 맞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3) 교육과정

첫째, 국악 전문가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악만 열심히 한다고 국악 교육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탐구를 해야 하며,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둘째로, 교육과정 정책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해방 이후 음악 교육의 비중은 점차로 낮아졌다. 그리고 현재의 경향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필수 교과’이던 음악은 이제 점점 ‘선택 교과’로 전환되어 가는 흐름에 있다. 물론 이 일이 하루 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 일은 매우 개연성이 높은 추세에 있다. 국악을 전공한 우리들에게 국악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국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의 여론과 권력에 의하여 국악은 우리 국악 전문가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우 쇠악한 형편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악의 부흥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로 들어서는 해야 한다. 산발적이고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작업이다.

셋째로, 교육과정의 기초는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이므로, 그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국악’을 창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악이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다는 주장은 좋은 것이로되, 이미 그 기능을 다 하고 말았다. ‘국악의 당위성’만으로 학교 교육에서 국악의 위상을 더 높이려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결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국악은 학생들이 스스로 찾는 ‘좋은 국악’ ‘재미있는 국악’ ‘유익한 국악’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학생들이 국악을 스스로 찾고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한, 학교 교육에서 국악은 언제나 그 중심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악 교육의 한 중요한 축은 ‘국악 전문가’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들은 비록 국악 교육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재미있는 국악’ ‘즐거운 국악’을 보여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4) 교과서

첫째, 국악의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꾸준히 하되, 그 비중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국악의 비중이 거의 40%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교과서 속의 비중이 40%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그 비중만큼 국악 교육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40%의 국악 내용이 더욱 충실해져야 할 것이다. 양적인 증가 뿐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악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질적인 향상도 같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생각하는 질적인 향상이란 가르칠 내용이 풍부하고 심미적인 속성을 지닌 국악 자료들을 말한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질적인 향상이란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흥겹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는 자료들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과서에 국악의 비중을 높이는 일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치 있는’ 국악 교육 자료를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악과 서양음악 뿐 아니라 비서구 음악도 적절한 수준만큼 교과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음악 교육에서는 음악을 ‘국악’과 ‘서양음악’의 두 종류로 구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서구 음악’도 하나의 중요한 음악 영역으로 인정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다른 음악이야 어떻든지 국악 교육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입장이 아니라, “국악, 서양음악, 비서구 음악 사이의 적절한 균형과 함께 질적인 음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권덕원, 2000). 서양 음악에 크게 몰려 있던 시절에는 국악 교육만 걱정하기에도 여념이 없었지만, 국악 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으로 국악, 서양음악, 그리고 비서구 음악 사이의 적절

한 균형과 조화에 대하여 국악 전공자들이 주도적으로 좋은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셋째로, 국악 기악 교육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물론 현 교과서에도 기악 교육을 위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구 치기, 소고 치기, 단소 불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다양한 악기들을 교실에서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악기들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컨대 소금이라는 관악기는 단소 못지않게 학교 교육에서 실용성을 지닌다. 어떤 교사의 경험에 의하면 아동들은 단소보다 소금을 더 쉽게 배운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전통 국악기를 교육용 악기로 개량하는 것이다. 양금의 줄 수를 줄인다는지, 피리의 서를 부드러운 재질로 하여 쉽게 소리 나게 한다든지, 철방향이나 운라를 소형으로 개량한다든지, 가야금을 개량하여 초보적인 학생들도 쉽게 연주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육을 염두에 두고 국악기를 개량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학교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국악 기악 교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5) 국악기 및 시설

첫째, 국악 수업에 필요한 국악기를 충분하게 갖추어 주고, 또한 높은 품질의 국악기를 구비해야 한다. 좋은 음악 교육은 ‘좋은 소리’를 전제로 한다. 음악적 성장은 이론이나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소리, 구체적인 음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좋은 국악기를 통하여 좋은 국악 소리를 충분히 듣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악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좋은 국악 수업이 되려면 다양한 음악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제한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타악기들은 그 울림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학급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방음 장치가 되었거나, 또는 거리상 격리된 공간이 필요하다.

셋째, 멀티미디어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국악에 관한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국악에 관한 비디오와 오

디오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악에 관한 몇몇 멀티미디어 자료들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때로 어떤 교사들은 멀티미디어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교사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멀티미디어 시설과 자료들이 필요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 자료들을 적절한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6) 국악 동요 창작 및 활용

첫째, 국악 동요집 발간을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몇 지역에서는 이미 국악 동요 창작하는 작곡가들의 모임이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의 결과 ‘국악 동요집’이 발간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악 동요집은 공모제의 성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각 작곡가들의 고유한 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음악계에 좋은 국악 동요를 탄생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그러한 국악 동요집 발간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국악 동요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국악 동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 국립국악원에서는 매년 여름에 국악 동요 작곡에 관한 세미나를 갖고 있다.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 판단된다.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하여, 각 지역에서 국악 동요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곡가들이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악 동요의 창작 및 보급’을 위하여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악 동요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독선은 지양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국악 동요에 대해 고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국악 동요의 선율은 이래야 한다’ 또는 ‘국악 동요의 장단과 리듬은 저래야 한다’는 등의 고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동요를 판단하곤 한다. 국악 동요는 이론이 아니고 창작이다. 그러므로 국악 동요의 창작에 관한 한, 정답은 없다. 각 작곡가들이 최선을 다하여, 국악 동요에 관한 자기의 이해와 경험을 토대

로, 창작해 낸 동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평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창작된 모든 작품은 우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그 작품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며, 특히 그 노래를 부르는 아동들의 흥미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국악 동요 작곡가들은 다른 작곡가(또는 국악 전문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기초하여 마음껏 창의적인 국악 동요를 창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 국악 교육 연구 지원

첫째로, 국악 교육에 대하여 좋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법’에 대한 탐구를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이 연구법의 원리를 따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절차와 방법이 신뢰롭지 못하면 그 연구의 결과 역시 신뢰성을 얻기 어렵다.

둘째로, 연구의 구심체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학문 공동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회가 설립되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자발적으로 연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국악 교육에 관한 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학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학자들 간에 서로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은 까닭도 있지만, ‘국악 교육’이라는 학문 영역에 대한 확신과 전망이 부족한 것도 그 중요한 원인이 된다. ‘국악 교육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국악 교육을 자기 전공이라고 확신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그 학문의 큰 틀을 세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셋째로, 팀웍으로서의 국악 교육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국악 교육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다양한 영역이 있는지 모른다. 크게 이론 교육, 감상 교육, 성악 교육, 기악 교육, 창작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세분화될 수 있다. 기악 교육 안에도 많은 악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악 교육에도 민요, 판소리, 가곡, 가사, 시조, 창작요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결코 몇 사

람만으로 이루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국악 교육은 팀웍으로 이루어진다. 국악의 모든 전공자들이 다 필요한 분야이며, 더 나아가 서양음악 전공자들, 교육학 전공자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국악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국악 교육을 하는 우리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협력해 나갈 때, 국악 교육의 발전은 물론, 21세기 한국의 전체 음악 교육도 크게 발전해 나가리라 본다.

Ⅲ. 결 론

국악 애호가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국악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악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국악 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 주기에 학교 교육을 활용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 유치원을 비롯하여, 초·중·고의 교육을 통하여 국악 사랑하는 마음을 학생들에게 심어 준다면, 그들은 평생 국악 애호가로서 국악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받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일반 국악 교육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들이 일반 국악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해서 즉시로 국악 교육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은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가능해지는 일이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체적으로 노력할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금까지 국악 전문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개별적으로 국악 교육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오늘날 모든 좋은 결과는 바로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제는 일반 국악 교육을 위하여 국악인들이 공동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어느 학자의 전문가적인 이론보다, 국악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 쉬운 이론을 마련하여 일반인, 학생들에게 다가 서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은 그 일반 애호가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국악을 사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일반 애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악 교육을 하되, 교육적인 배려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악 교육에 대한 현실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서로 다른 채로 계속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본 글에 제시된 현실 인식과 제안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진다. 현실 인식에 대한 생각들이 어우러지면서 보다 합리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 훨씬 더 파급력 있는 개선 방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은 많은 전문가들의 시간과 관심을 요청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의 열매는 ‘국악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우리 모든 국악인들의 염원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발원(2006). **교육통계: 초등학교 교원수 현황**. <http://kedi.re.kr>
- 국립국악고등학교(1995). **국악 교육 4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 국립국악고등학교.
- 국립국악원(1999). **’99 우수 국악 교육 연구 공모제**. 서울: 저자.
- 국립국악원(2000). **국악동요제**. 서울: 예성출판사.
- 국립국악원(2000). **우수 국악 교육 연구 공모제 2000: 수상작품집**. 서울: 저자.
- 국립국악원(2001). **국악 교육 체계화 연구: 가창편**, 서울: 저자.
- 국립국악원(2001). **우수 국악 교육 연구 공모제 2001: 수상작품집**. 서울: 저자.
- 국립국악원(2002). **우수 국악 교육 연구 공모제 2002: 수상작품집**. 서울: 저자.
- 권덕원(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 교육. **음악과 문화**, 2, 49-75.
- 권덕원(2002).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적용과 개선, **2002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pp. 481-494,

2002. 10. 25), 한국교원대학교.

권덕원(2005). 교사들을 위한 국악연수 프로그램 개선방안. **국악과 교육**, 23, 41-67.

이성천(1994). 국악 교육의 문제. **국악 교육**, 12, 3-32.

한국국악교육학회(1989). **국악 교육**, 7, 231.

Kwon, D. W.(2002). *The History of Korean Music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s, 1945-1998*.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rbana, IL.

Phelps, R. P., Ferrara, L., & Goolsby, T. W. (1993). *A Guide to Research in Music Education*. N.J.: The Scarecrow Press Inc.

ABSTRACT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The problems and the tasks

Doug-won Kwon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has seen significant development, especially since the 1990s. Traditional music accounts for a third of the music textbook contents. However, many problems still remain in several areas: teacher training program, music curriculum, music textbook, instrument and equipment, and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problems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and to provide reasonable ways to solve the problems.

Teachers' colleges need to increase courses o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improve the qualities of these courses. Teachers need to have enough opportunities for teachers training program on traditional music, and to participate in various contents of the program based on their own interests. Teachers want to have more qualified pieces and ensemble pieces for the advancement of their teaching.

Schools have to provide a dedicated classroom for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order to enable teachers to raise classwork to a higher standard. Teachers need to organize children's songs and to use these

effectively in their music teaching. The government and each regional institution should give financial suppor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o improve teaching methods and materials.

Comprehensive policies should be formulated and applied to the base of systematic approach in order to develop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in the future. If professors, teachers, and supervisors make efforts to do their own roles,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 will become more and more advanced.

Keywords: teacher training, music curriculum, music textbooks, Korean children song, research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ducation